



대림 제1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교우분들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우리 교구 신자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모두 평안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아침에 눈뜰 때면 손이 저절로 이마에 올라가 성호를 그으며 하느님과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 첫 주일, 믿음의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께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커다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말을 하자니 미안해서 자꾸만 글이 막힙니다. 그래도 성령께 맡기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말문을 열어봅니다.

전임 안명옥 주교님께서는 재임 기간 교구의 숙원사업이던 교육관을 건립하셨고, 이어서 교구청 이전을 위해 창원시 진전면에 약 4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곳은 옛 국군통합병원이 있던 곳으로, 나지막한 산과 아름다운 수목이 잘 보존된 따뜻하고 참한 곳입니다. 위치로 봐서도 교구 전체의 딱 중간에 있어 어느 본당에서 오더라도 대개 삼사십 분, 아주 먼 곳이라도 오십 분이면 당도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도 약 5년 가까이 오랜 조사와 탐구 그리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해에 총대리 신부를 중심으로 교구청 이전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동안 교구 내외 많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재 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봄에 설계가 완성되는 대로 시공회사가 공모될 것이고 이어 6월경 본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명년 2021년 가을에 새 청사를 완공하고 전야제 및 축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요경비는 건축만 110억을 추정하고 있으며 그 외 모든 것을 다해서 약 15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지금은 밤 자정을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 원고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뜰이나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희생과 봉헌을 요청하게 되어 저로서도 몹시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선 오늘부터 미사 후 <교구청 이전을 위한 기도문>을 바쳐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내 가족이 얼마를 봉헌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셔서 내년 3월 1일 사순 제1주일에 각 본당에 준비된 <약정서>로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년 동안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각 본당별로 할당금을 미리 정하는 그런 방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새 교구청이 마련되는 날까지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간구합시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1일 대림 제1주일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기억과 희망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해가 지나고 가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대림은 두 가지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말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천여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분 일생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오늘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희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종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어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온전히 행복한 완전한 삶을 누리는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은 그분의 구원을 오늘에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기억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오늘 살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희망이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날이 오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집으로 밀려들고,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향한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에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재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준비하고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경북대학교 사범대를 나와 경북 봉화여고와 청송 진보종고에서 근무하다 작고하신 어느 선생님의 일기가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쁜 아이들, 이쁘지는 않지만 좋은 녀석들, 못난 놈들. 내 그대들에게 줄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 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줘야하는 건 또 무언가? 그대들이 받고 싶은 것들은 무어요?” 또 이렇게 적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단순한 아이들. 순간적인 너희들 반응에 좌절하지 않는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마. 너희는 내 그림자다. 내 그림자. 내 사랑은 너희가 모두 차지하는 거다.” 이 모든 순간이 늘 깨어서 준비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끊임없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선생님의 일기는 우리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기억하고 희망하면서 모두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간절한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 주님에 대한 기억의 삶을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온전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찬 희망으로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교구청 이전을 위한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마산 교구를 사랑으로 이끄시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언제나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비오니,
새 교구청을 건립하려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어여뻐 여기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또한, 저희 모두의 정성 어린 기도와 희생이
마산교구민들을 위한 자리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귀한 봉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 교구청이 완성되는 날,
어려움 속에서도 일치한 저희가
서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평화의 모후님,
-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주일 진례

입 당 송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본 기 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제 1 독 서 이사 21-5

화 답 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 2 독 서 로마 13,11-14ㄱ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마태 24,37-44

영 성 체 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세계 교회와 시대의 소리

김중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된 1962년 10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 모인 2800여 명의 교부들은 그들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다양한 얼굴색,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교부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교회의 중심은 백인 중심의 유럽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 신학자 칼 라너는 가톨릭 교회가 ‘히브리-그리스도교 시대’와 ‘로마-그리스도교 시대’를 거쳐 ‘세계 교회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초세기 신앙 증거의 시대를 거쳐 중세의 영적 통치의 시대로 발전하여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근대의 다양한 도전은 교회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였습니다. 그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안으로는 자기 성찰의 공의회였고, 밖으로는 세상을 향한 사목 공의회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다양한 ‘시대의 징표’를 읽습니다. 이를 복음과 전통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표현하며, 구원 소명에 충실히 응답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의 ‘아마존 시노드’를 비롯한 ‘유럽 시노

드(1991년), '아프리카 시노드'(1994년), '아시아 시노드'(1998년)는 세계 교회 시대의 소리에 응답하는 보편 교회의 노력입니다. 보편성의 원리 안에서 지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세계 교회와 시대의 소리〉는 〈세계 교회〉의 움직임을 통해 〈시대의 소리〉를 듣고 성찰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열린 신앙 형성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놓쳤지만 한번 더 기억하고 성찰할 만한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열린 신앙을 위한 거울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아마존 시노드’의 본질

한국의 기성 언론은 가톨릭 교회가 ‘아마존 시노드’에서 기혼 사제를 허락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소식을 가십거리로 쏟아냈습니다. 기혼 사제 문제는 남미 교회의 수많은 사목적 문제 중의 하나로 사제의 성사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사목적 배려로서 그 가능성을 두고 거론되었을 뿐입니다.

시노드는 아마존의 문제가 ‘발전’을 핑계로 환경을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 경제적인 약탈과 착취의 문제임을 직시하였습니다. 시노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교회의 사목적 희망을 논의하였습니다. 아마존의 환경 문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생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의와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올해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접한 세 교황님들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장벽의 돌을 집어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의 집을 함께 건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 우리는 죽음의 장벽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국을 분리했으며 강압적으로 갈라놓았음을 상기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벽이 있는 곳에는 닫힌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어주는 통로가 필요하지, 장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헝가리와 세르비아 사이에 115km, 불가리아와 터키 사이에 260km의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난민을 막기 위한 장벽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막아버렸습니다.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을 살리는 만남을 가로막는 ‘적대적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가진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도 벽의 존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주애인’(愛主愛人)하기 위해, 평화를 얻기 위해 마음의 장벽부터 허물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018년 40명의 선교사들 희생

바티칸의 피데스 뉴스는 지난해 피살된 선교사가 40명에 이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35명의 사제, 1명의 신학생, 4명의 평신도 선교사가 희생되었습니다. 피살된 이유는 타 종교의 과격분자들에 의한 종교적 이유, 강도로 인한 경제적 이유, 폭동이나 암살에 의한 정치적 이유 등이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자기 안위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간혀 있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거리로 나섰기 때문에 다치고, 상처 입고, 더러워진 그런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49항)고 하셨습니다. 참된 복음화를 위해 열정을 바친 선교사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일림



교구장 동정

견진성사

일시: 12월 1일(주일)
장소: 덕산동성당

청년 간부연수

일시: 12월 7일(토)~8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앙대학 졸업식

일시: 12월 8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2020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면접

일시: 12월 1일(주일) 14: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49·7061

성모신심 묵상회 6주간

일시: 11월 5일(화)~12월 10일(화)
장소: 평거동성당(진주)

5주: 12월 3일(화) 강영구(루치오) 신부
6주: 12월 10일(화) 박지영(실비아) 수녀
미사 주례: 주용민(리노) 신부
장소: 평거동성당(진주)

성지 및 사적지 정비위원회

일시: 12월 3일(화) 14: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49·7016~7

평신도 신앙대학 설립 25주년 감사미사와 제25기 졸업식

일시: 12월 8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례: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문의: 055·249·7021~3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간부연수

일시: 12월 7일(토) 13:30~8일(주일) 13:30
※ 파견미사 12월 8일(주일)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고3 피정

일시: 2020년 2월 8일(토) 10:30~9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화해와 용서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당 6만 원/교구사목비 면제본당 3만 원
신청마감: 2020년 1월 29일(수)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주전장' 영화(다큐)상영

일시: 12월 9일(월) 19:00
장소: 신안동성당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채용분야: 주방 직원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사무실 직원 1명(출퇴근)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신부 추천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마감: 12월 15일(주일) 17:00 (방문, 우편, e-mail / 우편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055·221·1891~2, cecomasan@gmail.com

200차 ME주말 안내 (2박 3일)

일시: 1월 10일(금) 19:00~12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 201차 ME주말: 2020년 2월 21일(금)~23일(주일)
● 202차 ME주말: 2020년 4월 17일(금)~19일(주일)

수도회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시: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기간: 12월 14일~17일(추자도), 1월 4일~6일(한라산),
1월 13일~15일, 1월 17일~19일(한라산),
2월 1일~3일, 2월 7일~9일(한라산)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1일(일몰, 일출, 한라산 눈꽃산행)
문의: 02·773·1463, 064·756·6009

한T아고 가는 길 (성지순례길)

일시: 12월 20일~21일 1월 10일~11일,
1월 30일~2월 1일(완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참가비: 1박2일(6만5천 원), 2박3일(13만 원)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해넘이 피정

일시: 12월 29일(주일) 16:30~31일(화) 13:3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참가비: 19만원(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기 타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1일(월)~2020년 2월 7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교구 부부중창단 제3회 정기공연

일시: 12월 3일(화) 19:30
장소: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
담당사제: 조정제 오달론 신부
지휘: 이철성 반주: 김효성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2월 1일</td> <td>이스라엘 요르단</td> <td>12일</td> <td>439 만원</td> </tr> <tr> <td>2월 10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일</td> <td>395 만원</td> </tr> <tr> <td>2월 12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일</td> <td>395 만원</td> </tr> <tr> <td>2월 13일</td> <td>이스라엘 이탈리아</td> <td>12일</td> <td>439 만원</td> </tr> </table> 분도여행사 02.852.8525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439 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39 만원	신세계피부비뇨기와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중 1588-5335 초음파 배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439 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39 만원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해외선교)

일시: 12월 8일(주일) 14:00~17:00
대상: 만23세~만38세, 남·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감정우 요한신부)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입학상담: 053·850·258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2월 30일~1월 2일, 1월 6일~8일, 1월 31일~2월 2일,
2월 11일~13일, 2월 19일~20일, 2월 27일~29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권민자 수녀)

1박2일: 1월 5일~6일, 2월 29일~3월 1일
3박4일: 12월 19일~22일, 1월 9일~12일
8박9일: 12월 26일~1월 3일, 1월 28일~2월 5일 (신학생)
40일피정: 4월 14일~5월 22일, 6월 16일~7월 25일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26차 해외선교사교육 (2020년)

일시: 2020년 1월 13일(월)~2월 7일(금)
대상: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장소: 서울 돈암동 성골롬반외방선교회선교센터
문의: 02·953·0613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1@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회원동성당 제2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안병석(마르코)
사목부회장(남성): 김대찬(벨리치아노)
사목부회장(여성): 김귀연(마리아)
총무: 김영환(알폰소)
재경분과장: 이관호(스테파노)
전례분과장: 황영숙(요안나)
복지분과장: 손위현(요셉)
구역분과장: 하숙희(글라라)
교육분과장: 이재갑(가브리엘)
홍보분과장: 박경래(안토니오)
청소년분과장: 한병권(프란치스코)
시설분과장: 강판규(베드로)
선교분과장: 손금자(루시아)
성소분과장: 김정임(마리아)
가정사목분과장: 강정신(로사)

창녕성당 제31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김정식(암브로시오)
사목부회장(남성): 박병호(안드레아), 신춘기(안드레아)
사목부회장(여성): 안경자(유스티나)
총무: 성보경(미카엘)
기획관리분과장: 최용범(빈첸시오)
소공동체분과장: 하선화(세실리아)
선교분과장: 송계용(바오로)
전례분과장: 성영옥(루시아)
선교분과장: 김창호(베드로)
교육분과장: 하옥남(사바나)
청소년분과장: 정인숙(아가타)
사회복지분과장: 황순남(소하데레사)
시설관리분과장: 문명규(바오로)
환경분과장: 김학대(시메온)
홍보분과장: 이복재(요한)

상남동성당 제2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이진호(베드로)
사목부회장(남성): 문형호(레오나르도)
사목부회장(여성): 이영옥(안나)
총무: 박신석(바오로)
복음화분과장: 장해옥(루시아)
전례분과장: 하혜주(베로니카)
노인·복지분과장: 황외숙(스테파니아)
가정·청소년분과장: 오행임(데레사)
소공동체분과장: 지순남(데레사)
시설관리분과장: 김병오(파스칼)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2월 2일(월) 19:00	월남동성당	선물	이원태 (클레멘스, 교구 사목국장) 신부	이원태 신부(베드로)	010·5072·5612
창원지구	12월 2일(월) 19:00	반송성당	찬양을 통한 치유	김성철(프란치스코, 수원교구)	정중규 신부(클라로, 원로사목)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내용	문의
한국외방선교회	해외 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12/3 (289만원) 1/22 구정(29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1/9, 3/4 ◆ 선택선 이태리 일주 9일 (299만원) 1/21 ◆ 성모발현지 13일 11/26(379만원), 2/3 (38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정용근 내과 의원 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 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 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 055.713.7771 원장 정용근 프란치스코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쌍용자동차 마산 제일대리점 (마산역 앞) 태도건 다니엘 010.2232.1456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칸 2020년형 출시·노후 경유차 지원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	---	---	--



테라피 수녀원, 랫잇비 수녀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수녀원

10여 년 전, 우리 수녀원 살림 맡은 잼을 담당하시던 수녀님 중 한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잼 관련업자와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장 잼이죠?”, “네? 여기 잼 공장인데요” “거기 공장 잼 아닌가요?” “여기 잼 공장이에요” 이런 식의 서로 통하지 않는 대화가 한참 오고 간 끝에 관련 물품을 받기로 하고, 수녀원(트라피스트 수녀원) 주소와 담당 수녀님 이름(레티치아)을 불러주고는 오묘한(?)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런 며칠 뒤 도착한 물품 주소란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테라피 수녀원, 랫잇비 수녀 앞” 이야기를 들은 수녀들 모두 박장대소하였고, 가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마치 처음 듣는 듯이 웃음을 터트리곤 하였는데, 그 ‘테라피’와 ‘랫잇비’라는 말이 계속 제 안에 어떤 울림을 남겨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27명의 수녀를 이 수정 산자락으로 불러 모으신 것은 살아가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당신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온전히 새로운 사람, 당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초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 그것뿐 아닌가?’ ‘그렇다면 이곳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테라피 수녀원이고, 우리 모두는 랫잇비 수녀들이지 않은가?’...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우리 수녀원과 수녀들의 정체성의 일면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기막힌 말이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 그분의 사랑이 900여 년 전 프랑스 ‘시토’라는 황야에 ‘새 수도원’이라 불리던 수도원 창립을 시작하게 했고, 시공을 훌쩍 뛰어넘어, 100여 년 전 일본 북해도에 남자, 여자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32년 전 1987년에는 대한민국 수정에 또 하나의 트라피스트 여자 수도원을 탄생시켰습니다. 전적으로 관상에 질서 지워진 수도승원으로, 성 베네딕도의 수도 규칙에 따라 수도원 울타리 안에서 고독과 침묵, 끊임없는 기도와 기쁨에 찬 회개 안에서 수도승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존엄하신 하느님께 겸허하고 고귀한 봉사를 드리는(회헌 제2조) 이 광야에로 우리 모두를 끌어들이신 하느님, 그분의 사랑!

어제도, 오늘도 매일 새로운 나날을 펼쳐주시는 하느님께 자신의 바람을 속삭이는 저희 수련실 자매의 글을 함께 나누며, 당신을 ‘깨어’ 기다리기를 간곡히 호소하시는 주님 마음의 고동소리를 호흡하는 카이로스 시기 되시길 빕니다.

“풀베기를 할 때에는 마음에 돌아난 거뿔을 제거해 주시길, 잼 병을 하나씩 옮기며 상처 난 한 영혼을 위해, 잼 상자 간지를 끼울 때마다 연옥 영혼을 위해, 별안간 화를 내시는 수녀님을 대하고 나서는 학대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오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의한 평가나 판결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무덤을 지날 때나 식물을 가꾸거나 죽은 동물을 묻어 줄 때는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 계단 손잡이 봉을 닦을 때 봉 하나에 하느님 자비 하나를 청하며, 목주 매듭알 하나를 지을 때마다 세상에 평화 하나, 수련실 일을 할 때에는 언젠가 수련실 빈 책상에 앉게 될 성소자들을 위해, 주방 일이나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우리 수녀님들의 건강을 위해 등등.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